

# Time Out

## Seoul

JUNE 2015 VOL.1  
WWW.TIMEOUTSEOUL.KR  
ISSN 2384-227X  
**FREE**

24시간 잠들지 않는 서울의 24가지 매력



# The hot list

이 달에 놓쳐서는 안될 다섯가지 일들!  
June 2015

## Hello, Seoul...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타임아웃 서울>이 창간했습니다. 전 세계 89개 도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타임아웃(www.timeout.com)은 해외 도시에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런던을 비롯해 뉴욕, 그리고 유럽의 여러 도시, 아시아에서는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 안 나오는 도시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가 물었죠. <타임아웃 서울>은 왜 없는가 하고요. 서울에서 일어나는 가장 흥미로운 소식, 서울을 더 역동적으로 즐기는 방법, 서울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드리겠습니다. 익숙하고 평범한 서울을 새롭게 여행하는 동반자로 건넌습니다. <타임아웃 서울>이 친절하면서도 꼼꼼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 Features

### 14 Seoul eye: 7 shades of Seoul

6만3000여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스타그램 유저 'Seoul\_stateofmind'는 홍콩계 영국인이다. 그가 찍은 서울 풍경.

### 16 48 hours in Seoul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는 비주얼 아티스트 빠키. 그녀의 48시간 주말을 동행했다.

### 18 Ready, set, Seoul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서울 풍경과 일상도 세계의 도시와 겨루어보면 독특한 것 투성이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서울의 24가지 매력.

### 30 Hot spots: 염리동 골목길 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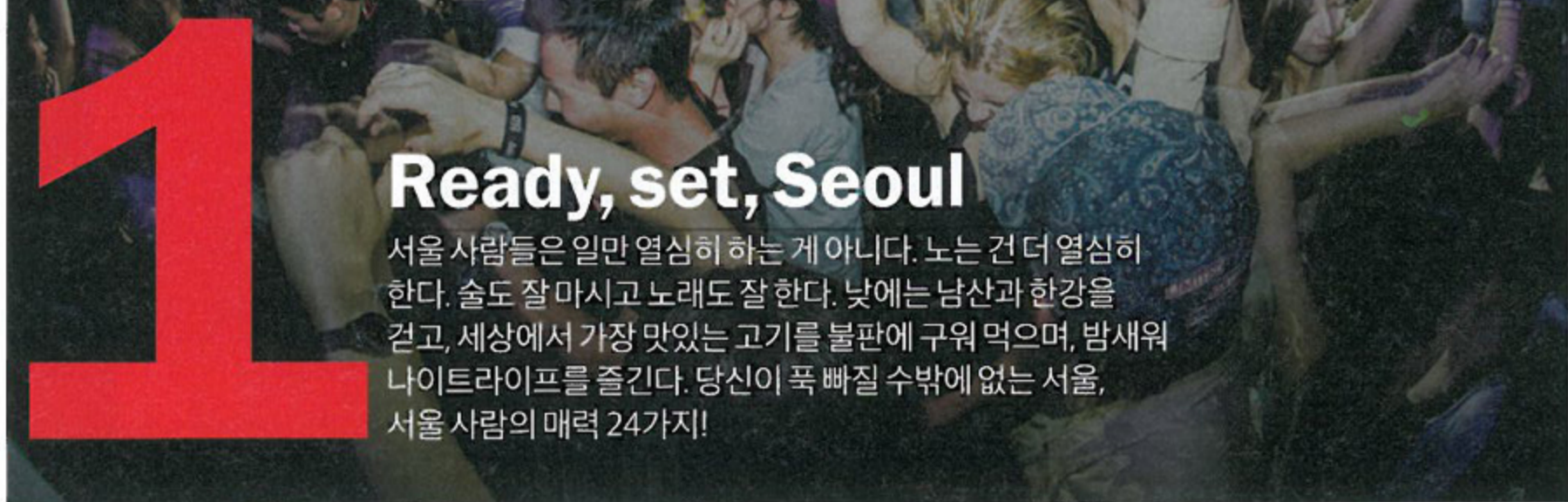
서촌도 아니고 경리단도 아니다. 1970-80년대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염리동으로 가자.

### 33 Picnic in the city

서울 안에 있는 산으로, 강으로, 옥상으로 6월의 피크닉을 떠날 수 있다. 숨은 피크닉 장소 공개.

## Regulars

- 8 This month in Seoul
- 40 Food & Drink
- 48 Shopping & Style
- 52 Things to Do
- 56 Art
- 60 Film
- 66 Theater & Dance
- 70 Music
- 74 Nightlife
- 76 LGBT
- 78 Hotels



# 1

## Ready, set, Seoul

서울 사람들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노는 건 더 열심히 한다.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잘 한다. 낮에는 남산과 한강을 걷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불판에 구워 먹으며, 밤새워 나이트라이프를 즐긴다. 당신이 꼭 빠질 수밖에 없는 서울, 서울 사람의 매력 24가지!



## 2

컨테이너 200개를 쌓아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쇼핑몰 커먼 그라운드. 서울의 쇼핑 판도를 바꿔놓을 신세계. See Shopping &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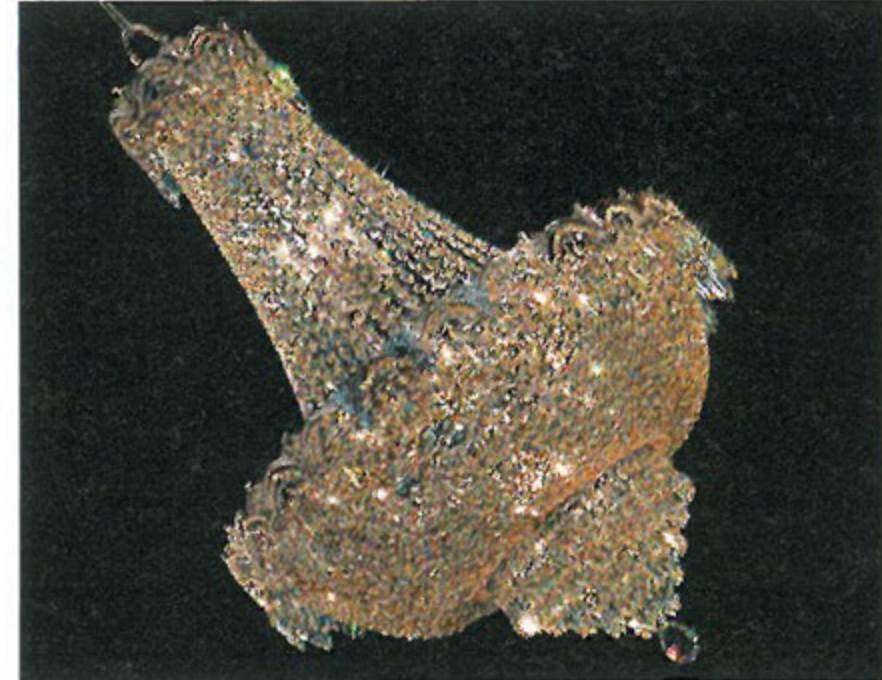
## 3

야외에서 마시는 맥주 축제 '그레이트 코리아안 비어 페스티벌'. 주인공은 한국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맥주들! See Things to Do.



## 4

한국인은 김치를 좋아하고 민족적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김치를 사먹으라고 한다면? See Food & Drink.



## 5

자수를 놓은 그린 상들리에의 형상은 예쁘다.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든 것일까? 작품 속 뒷이야기가 더 많은 함경아의 전시 속으로. See Art.

JOIN THE CONVERSATION ON FACEBOOK, INSTAGRAM AND THE TIME OUT BLOG



facebook.com/timeoutseoul



timeoutseoul



www.timeou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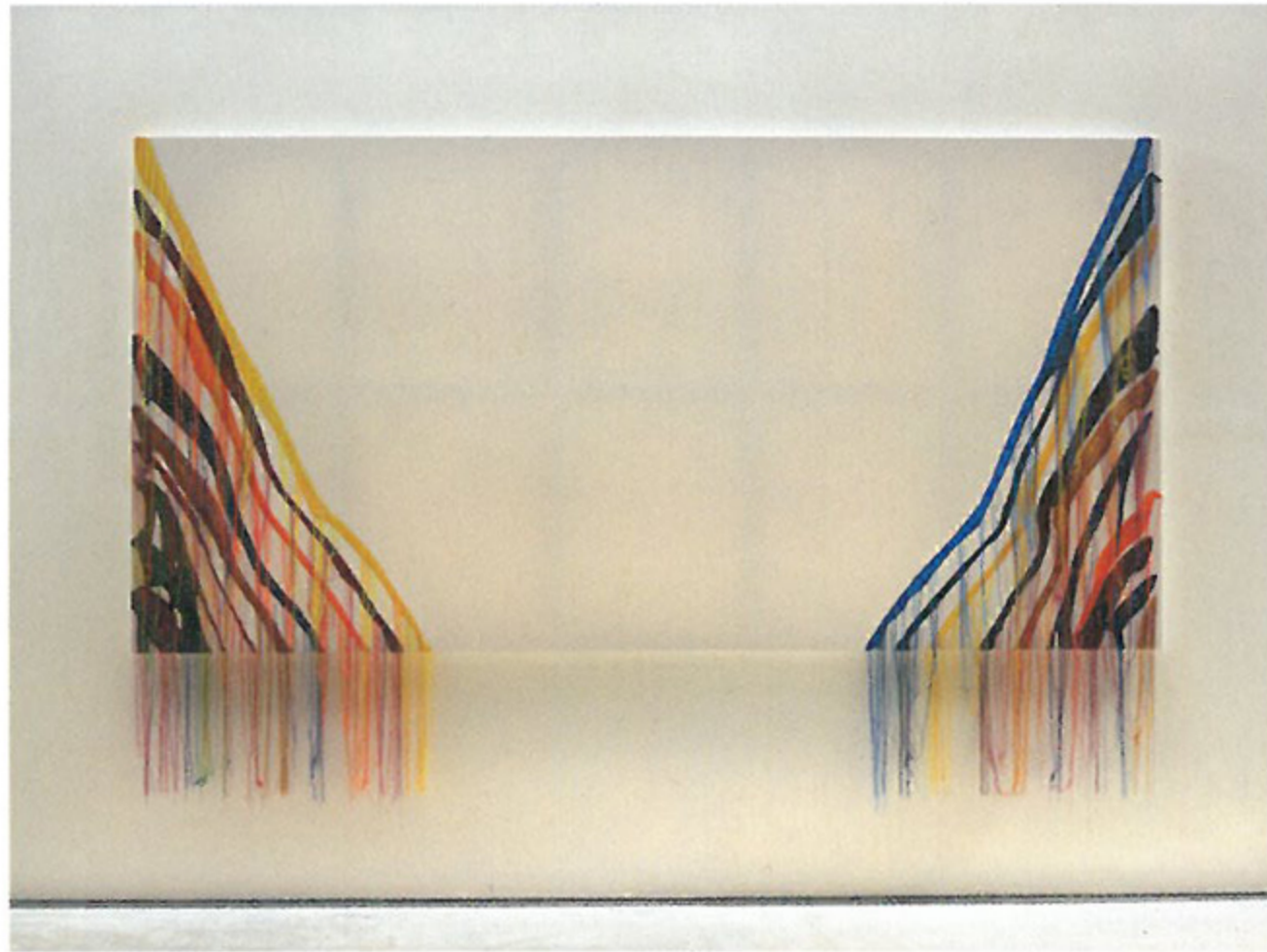


Cover art. <타임아웃 서울> 창간호의 표지 작업을 한 김용오 작가는 서울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이다. 주로 컬러블로킹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해 페인팅, 영상, 브이제이밍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디아 go! 인디아>가 있다.

# 함경아 개인전

국제갤러리 6월 4일 - 7월 5일

함경아는 작품을 만들 때 이야기를 쫓는다. 새로운 작품을 구상할 때 대중에게 말할 이야기를 우선순위로 둔다. 설치 작업, 비디오, 퍼포먼스와 전통 재료 등의 다양한 재료는 이야기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야기에 적합한 표현 재료와 매체를 찾다 보니 작업 범위가 자연스럽게 넓어진 것이다. 'Chasing Yellow' 작품을 위해서는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어릴 때 귀했던 바나나가 저렴해진 이유를 찾으려 필리핀행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다. 도쿄 시부야의 경찰과 나란히 선 채 경찰관을 흉내 내는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도 했지만, 이번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전시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작품이 한 점도 없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함경아의 자수회화 시리즈 작품은 멀리서 보면 크게 뾰족한 사진처럼 보인다. 갤러리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What you see is the unseen/ Chandeliers for Five Cities 04'. 비단 위에 상들리에의 형상을 수놓은 작품이다. 얼핏 보면



작가가 직접 자수를 놓아 작품을 만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모든 자수작업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져서 제작됐다. 작가는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나 사진을 조합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의 도안을 북한 출입이 가능한 제3자를 통해 북한 여성들에게 전달했다. 북한 사람들이 직접 짠 노란 천 위에는 같은 노란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함경아의 작품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관객에게 작품 속 이야기를 스스로 찾는 과제를 준다. 작품명 아래에는 실제 재료인 실뿐만 아니라, 1800시간 동안 자수를 놓은



'북한 노동자', 도안과 완성물을 주고받아준 '중개인', '검열(Censorship)' 과 '불안감(Anxiety)'도 작품의 주재료로 적혀 있다. 해설 없이 그냥 전시만 보면, 천 안에 쓰여 있는 글귀를 찾을 수 없다. 자수 솜씨가 좋다고 감탄만 한 채 전시장을 나설 수도 있다는 말이다.

# 앤디 워홀 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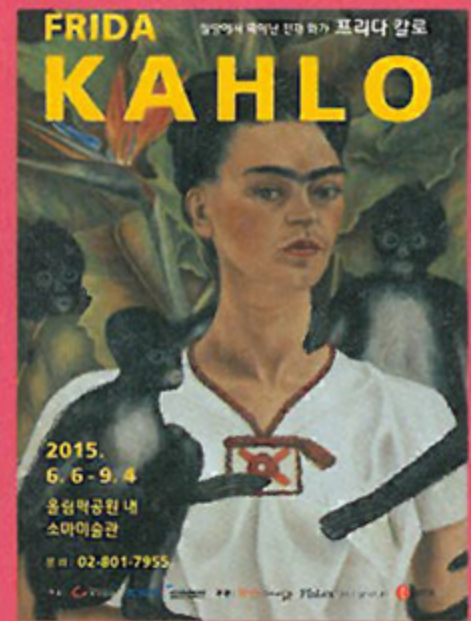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6월 6일 - 9월 27일

앤디 워홀은 돈을 잘 버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잭슨 폴락의 우상으로 여기는 작가 지망생들이 무리 지어 담배를 피우며 고독한 날들을 보낼 때 앤디 워홀은 학교를 졸업하고 <글래머> 잡지사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을 했다. 모두 성공을 위해서였다. 잡지에서 내준 첫 번째 작업은 'Success is a Job in New York'. 그의 첫 작업명처럼 앤디 워홀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 상을 받고 작가로서 순탄한 길을 걷게 된다. 흠뻑린 물감으로 캔버스의 경계를 없애려던 추상표현주의 화가들과 달리 그는 알아보기 쉬운 회화로 소통을 했기 때문이다. DDP에서 열리는 <앤디 워홀 라이브>는 그의 대표작은 물론 우리에게 생소한 1950년대 산업 드로잉과 그의 영화, 그리고

유년시절 사진까지 한자리에 모은 친절한 전시다. 마를린 먼로와 마오의 초상화, 모나리자의 초상화를 재해석한 작품과 워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캠벨수프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걸린다. 이런 실크스크린 작품들은 비록 워홀이 직접 그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생각보다 크다는 점에 한 번, 그리고 섬세해서 볼거리가 많은 점에 두 번 놀란다. 캠벨수프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수프보다 몇 배나 크게 확대되었고, 각각 맛과 강통 캔에 표현한 음영도 미세하게 다르다. 유명한 배우와 상점에 진열된 뽕족구두 모두 실크스크린으로 찍어내면 단순화되고, 더욱 화려한 색으로 재탄생한다. 워홀의 고향인 미국 피츠버그에서 온 작품 400여 점은 모두 앤디워홀미술관의 소장품이다. '라파엘 마돈나-\$6.99' 같은 대작과 30년 만에 발견된 디지털 작품은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가 몰라봤던 실험적인 영화인의 모습도 신선하다.

# Critics' picks

김영진(아트인사이드 대표)



## 프리다 칼로 전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 유명 아티스트는? 반 고흐, 사갈, 피카소. 공통점은? 화려한 색. 수십만 관객을 모은 전시들. 프리다 칼로는? 색이 너무 어두워. 한국인의 미술 취향의 대반전은 일어날까? ▶ 소마미술관 6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 허영만 전

국민 만화가 허영만의 첫 원화 전시회. 경이적인 시청률 43%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날아라 슈퍼보드>의 주제가 '치키치키차카초코초'가 다시 한 번 울려 퍼지길 기대해본다.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7월 19일까지

## 그림/그림자 오늘의 회화 전

'회화가 죽은' 시대 '회화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카피를 내건 전시. 국내외 가장 핫하다는 작가 12명의 작품을 걸었다. '상상'은 '죽은 회화'도 살려내는 존재일까? ▶ 플라토미술관 6월 7일까지

## 인터플레이 전

건축, 디자인, 아트 등 팔방미인형 다국적 작가 4인이 만들어낸 대형 설치 프로젝트. 쓰레기로 관객을 압도할지, 관객에게 감동을 줄 것인지? 관객도 참여한다고 하니,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8월 23일까지

## 성동훈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초적인 작가 성동훈. 에로스를 탐닉한 작가의 변신은 유죄, 무죄? ▶ 사비나미술관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PHOTOGRAPHS: HAM KYUNG-AH;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ANDY WARHOL: "CAMPBELL'S SOUP I"; TOMATO, 1968; © 2015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FRIDA KAHLO: COURTESY OF THE ARTIST AND SOMA MUSEUM